

열린우리당 비대위원·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만족한다고, 원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지고 그래도 기대 이상의 그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당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취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어서 따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전에 상의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상의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상의를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은 그런 측면도 또한 있어서 특별히 상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의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당을 대표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대개 당의 공론이 그런 방향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초청 거절 네 번째...대화와 토론 막는 건 비민주적 발상

오늘 야당 대표들도 함께 초청하고 싶었는데 초청이 거절됐습니다. 이번뿐

만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대개 국회의 과정을 봐도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찬반의 입장이 미리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과 더불어서 성의 있게 토론하고, 토론 과정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 또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아예 토론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대화도 않고 토론도 않고 또 지난날 하는 것으로 봐서 표결도 하기 싫다, 그러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독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말한 힘은 없지만 발상은 꼭 독재 시절의 발상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더라도 국민과의 토론 통해 반대 관철해나가야

결국 지금 이런저런 차기 후보 가지고 여론의 지지가 좀 높으니깐 마치 받은 밥상으로 생각하고, 혹시 받은 밥상에 김새까봐 그렇게 몸조심하는 모양인데, 그건 대단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은 언제 어느 주장이든, 비록 소수자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경청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반대를 관철하더라도 국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반대를 관철해 나가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했는데, 초청 자체를 거부해 버렸는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대통령이 하도 우스우니깐 이제 초청 같은 데 응할 필요도 없다는 이런 오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최소한 예의는 서로 갖추고, 여야가 정치를 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이런 처신을 하는 것 보면 참 무척 아쉽습니다. 무척 아쉽고 실망스럽고 또 걱정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력한, 유력한 정치 세력인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력한 정치 세력이 이렇게 여론만 믿고 이렇게 안하무인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또 저는 여러분들과 사전에 논의도 하지 못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라도 제가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도 계실 것이고 걱정이 되시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물어보고 싶은 일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의 여유밖에 못 드렸는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